

# 장만채 교육감 “획일적 야자 대대적 개편”

〈야간자율학습〉

## 내년부터 일반고 ‘전남형 애프터스쿨’ 도입

### 진로 연계 다양한 교육 ...전문교사 확보 등 예산 관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전남 일반계 고교에서 이뤄져온 대학입시 중심의 획일적 야간자율학습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당장, 내년부터 학생들 선택에 따라 입시 공부 뿐 아니라 생활체육·음악·미술·IT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배울 기회를 주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현편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다양한 희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외부 강사 확보 및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관심이사. 자칫 공급자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만으로 채워지면서 ‘반쪽짜리’에 머물지 않을까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장만채 교육감은 2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 후에도 획일적인 대학입시에 치중하는 현행 야간 자율학습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전남형 애프터스쿨’로 이름붙여진 야간 자율학습 개선안은 학생들 희망을 받아 진로 탐색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을 배울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진로와 연계한 동아리 활동반, 인터넷 수강반, 예체능반, 지역대학 연계반 등 방과 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겠다는 게 장 교육감의 구상이다. 현재 화순 이양고와 남양고 등 일부 고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택형 자율학습제’를 91개 전체

일반계고로 확대,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화순 이양고의 경우 일반적 자율학습 외에 특정 요일에 체육활동, 야간 예술동아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일부 외부 강사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 운영 중이다.

장 교육감은 아울러 특정 교과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의 학업 열정을 해결해준다는 취지로 학교간 공동 교육과정을 적극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수학 II, 물리 II, 제 2외국어 등을 배우고 싶어도 단일 학교만으로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이들 학생들을 모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사교육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교육청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수월성 교육’에 대한 우려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장 교육감은 또 일부 학교에서 이뤄졌던

사설 모의고사를 금지하는 대신, 정기적으로 진행해온 전국연합학력고사 문항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학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다양한 야간 자율학습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도교육청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예산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형 애프터스쿨 활성화를 위한 예산 35억원과 기존 방과후 활동비 등을 활용한다면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교육청은 향후 권역별로 3차례 설명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구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7    해질 03:07  
해짐 17:22    달짐 15:11

### 아침 추위 절정

새벽부터 아침사이 서해안과 일부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었다.

### 지역별 날씨(℃)

광주	흐린뒤 맑음	0/10	보성	구름조금	-1/10
목포	흐린뒤 맑음	0/9	순천	구름조금	1/11
여수	구름조금	2/10	영광	흐린뒤 맑음	-2/9
나주	흐린뒤 맑음	-2/10	진도	흐린뒤 맑음	2/10
완도	흐린뒤 맑음	2/10	전주	흐린뒤 맑음	-1/9
구례	흐린뒤 맑음	-2/9	군산	흐린뒤 맑음	-1/8
강진	흐린뒤 맑음	0/10	남원	구름조금	-2/9
해남	흐린뒤 맑음	0/10	축산도	흐린뒤 맑음	5/9
장성	흐린뒤 맑음	-2/10		흐린뒤 맑음	



### ◇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부	면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0.5~1.5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북동	0.5~1.0
	면바다(동) 북서~북	1.0~2.0	북~북동	0.5~1.5
서부	면바다(서) 북서~북	1.0~2.0	북~북동	1.0~1.5

### ◇ 생활지수

눈	높음
뇌졸중	높음
감기	높음
자외선	낮음

###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4:31	11:39
여수	17:01	23:48
	00:18	06:50
	12:40	18:43

### ◇ 주간 날씨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11/1(목)	2(금)
☁	☁	☀	☀	☁	☀	☀
0/9	6/11	1/9	0/11	3/12	5/12	3/13

## 9.29대 1... 대입보다 뜨거운 공립유치원 입학    광주 10곳 전년보다 지원자 늘어

24일 오후 광주시 북구 건국유치원. 유치원 추첨장에 있는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받아들이기 전처럼 긴장감이 흘렀다. 주황색 탁구공을 집어 야공립 유치원에 자녀를 보낼 수 있지만 주황색 탁구공은 2개 뿐. 32명의 엄마들은 다른 부모들이 상자 속 탁구공을 집어올때마다 탄식과 환호성을 올렸다.

유치원 원아 모집이 시작되면서 탁구공 추첨으로 입학 여부를 가리는 진풍경이 어김없이 벌어졌다. 공립 단설(單設) 유치원에는 모집 인원을 훌쩍 넘는 ‘젊은 엄마’들이 몰려들었다.

24일 원아 모집 추첨이 이뤄진 건국유치원(공립단설)의 경우 3~5세 51명을 뽑는데 400명이 넘게 몰리면서 9.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4.91대 1)보다 훨씬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원아 모집을 끝낸 광주지역 10개 공립유치원 모두 전년보다 지원자가 많았다. 예향유치원도 지난해(4.94대 1)보다 높은 8.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용유치원도 5.84대 1의 경쟁률로, 300명이 넘는 부



24일 광주 북구 건국동 공립 건국유치원 5세 남아원생 추첨현장에서 학부모가 상자 안에 있는 추첨용 탁구공을 뽑고 있다. 25명 정원에 3명의 결원이 생긴 5세 남아 모집에는 모두 32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모들이 2시부터 가슴 졸이며 80명의 선발자에 포함되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렸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중단에 대

한 불안감, 저렴한 교육비, 국가임용고시를 통해 선발된 선생님들로 구성된 신뢰성 등이 더해지면서 공립유치원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올 해 10월 현재 유치원생은 2만4704명으로 지난 한 해 유치원생 2만3713명보다 늘어났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조선대 총학 첫 여학생 회장 탄생

### 국어교육과 3년 김신영...8년만에 운동권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사상 첫 여학생 회장이 탄생했다. 또 8년 만에 ‘운동권’이 총학생회를 이끌게 됐다.

24일 조선대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치러진 2017학년도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김신영(여·24·국어교육과 3학

년·회장·사진)·원동언(전기공학과 3학년·부회장)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유권자 1만7079명 중 9959명(58.31%)이 참여했고, 김 후보 측은 모두 4731표(47.50%)를 획득해 4452표(44.70%)를 얻은 기호 1번 박석인(정보통신공학과 4학



년)·유종민(태권도학과 4학년) 후보를 279표 차로 이겼다. 김 회장은 측은 ‘평범한 사람들의 유쾌한 반란-카운터 펀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핵심 공약으로 ▲생활비 절감 ▲더 가까운 학생회 ▲성평등위원회를 제시했다. 특히 김 회장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사회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1학년 때부터 진보 성향의 중앙동아리 ‘소셜메이커’에 가입해 활동했고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세월호상주모임, 환경운동연합, 5·18기념재단 활동에 동참했다.

한편, 조선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 1번 후보 측이 전체 선거인 명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 김경인기자 kki@

## 주말 촛불집회 든든히 준비하세요

### 26일 비·바람 조금

26일 광주와 전남 21개 시·군에서 열리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우산이나 우의, 두터운 외투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6일 광주·전남지역은 차차 흐려져 오후에 남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이다. 예상 기온은 아침

최저 영하 2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영상 8~10도다. 특히 26일에는 돌풍과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지난 22일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추위는 27일께부터 풀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24일 목포와 진도, 신안 흑산도에서는 평년보다 4~8일 빠르게 찾눈이 관측됐다. 적설량은 기록되지 않았다. /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공문서 한글 전용 작성 ‘합헌’

### 현재 “국민 이해 위해 필요”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한 국어기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공문서의 한글 전용 작성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재는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해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

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문용어나 신조어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으므로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또 초·중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교과부 고시도 재판관 5(합헌)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재는 “한자지식이 부족하다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그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한자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연합뉴스

### 양산지구를 빛낼 39층 초고층 랜드마크 프리미엄!

- 양산지구 최고 명품입지! 명품조망!
- 전세값으로 새아파트 사재!
- 계약금 5%! (1,100만원~내집마련)
- 2억 초반대~ 중소형 아파트~!
- 중도금 무이자 무제한 전매!
- 중소형 (구)26형 / (구)30형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모델하우스 성황리 공개중!

1%를 위한 명품! 안전설계! 혁신평면구조

양산지구·첨단 더블 프리미엄!

양산지구 스카이라이프 유탑유블레스

계약금 5% 내집마련

분양문의 (062) 351-4610

양산지구·첨단 더블 프리미엄!

양산지구 스카이라이프 유탑유블레스

계약금 5% 내집마련

분양문의 (062) 351-4610

## 메디컬센터 | 분양 및 임대

순창터미널 맞은편

1층 약국, 제과점, 편의점 기타

2층 내과, 검진센터

3층 안과, 피부·비뇨기과

주소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213-5번지

4층 치과, 이비인후과

5층 정형외과, 한방의학과

6층 물리치료실

대지면적 : 1,057㎡ 지상6층, 주차장 27대

● 1층 : 101호 129.5㎡(구 39평), 102호 137.6㎡(구 41평), 103호 83.4㎡(구 25평), 104호 129.5㎡(구 39평)

● 2층 : 201호 240㎡(구 72평), 202호 240㎡(구 72평)

● 3층 ~ 6층 : 2층과 동일

(주)우원 (주)태우종합건설

(063) 653-7806

분양문의

010-4922-3317